

딤미(DHIMMĪ)적 상황으로서의 인도네시아 기독교와 대화로서의 선교

윤용호*

- I. 시작하는 말
- II. 딤미(DHIMMĪ)제도에 대한 이해와 상반된 평가
- III. 딤미와 인도네시아 기독교의 연관성 이해
 - 1. 딤미적 상황으로서의 인도네시아 기독교
 - 2. 인도네시아 교회의 “현존”으로서의 선교
- IV. 무슬림과의 대화를 통한 선교의 근거
- V. 무슬림과의 대화를 통한 선교의 방법
 - 1.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대화
 - 2. ‘공통의 관심사’에 초점을 둔 대화
- VI. 맺는 말

* 인도네시아 스마르 신학교 교수

■ 한글초록

이슬람이 시작되고 확산된 이래 이슬람 다수 사회에서 살아갔던 소수의 비무슬림을 덤미라고 부른다. 이슬람은 덤미 제도가 덤미를 보호하는 이슬람의 관용을 보여준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기독교는 덤미 제도가 덤미를 차별하는 제도였다고 주장한다. 덤미 제도는 그 명분과는 다르게 인두세와 토지세라는 차별, 무슬림으로의 개종 압박, 그리고 박해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는 소수이고, 인도네시아 기독교가 경험하는 차별과 박해, 제약은 과거 이슬람 국가에서 존재했던 덤미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 공동체는 덤미로서의 차별과 제약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남았으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며 선교적 현존으로서 선교를 보여준 것이다. 더 나아가서 대화로서의 선교는 인도네시아 교회의 이슬람을 향한 선교적 현존을 넘어서는 선교 방안이다. 온건하고 중도적인 인도네시아 무슬림과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공통의 관심사에 초점을 둔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주제어: 덤미, 관용과 차별, 선교적 현존, 대화로서의 선교, 평화로운 공존, 공통의 관심사

I. 시작하는 말

세계 최대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국가 인도네시아는 샤리아에 의해 통치되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 판차실라(*Pancasila*)¹ 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의해 이슬람을 포함한 6개의 종교(이슬람, 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이다.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인구의 87%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고, 개신교는 7%, 가톨릭은 3%, 힌두교는 2%로 발리의 주종교이고, 화교들이 주로 믿는 불교와 유교가 나머지를 이룬다.²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 그리고 다문화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국가이다. 다종교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 인도네시아에서 각자의 종교는 헌법에 의해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슬람이 다수 종교인 사회 속에서 소수 종교인 기독교는 다양한 차별과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가 겪는 차별과 제약은 과거 이슬람 국가 내에 존재했던 소

1 '판차실라'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말로, '다섯'이라는 의미의 '판차(*panca*)'와 '원리'라는 의미의 '실라(*sila*)'가 합쳐진 말이다. 제1대 대통령인 수카르노(*Soekarno*)의 정치 동지인 야민(*Yamin*)이 창안했고, 수카르노가 처음 사용했다. 다섯 가지 원리는 첫째, 유일신에 대한 신앙의 원칙(*Ketuhanan yang Maha Esa*), 둘째, 정의롭고 예의 바른 인간성을 위한 인도주의 원칙(*Kemanusiaan yang Adil dan Beradab*), 셋째, 인도네시아 단합과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 원칙(*Persatuan Indonesia*), 넷째, 대중합의와 대의제도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원칙(*Kerakyatan yang dipimpin oleh Kebijaksanaan dalam Permusyawaratan dan Perwakilan*), 다섯째, 전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사회정의 원칙(*Keadilan Sosial bagi seluruh Rakyat Indonesia*)이다. Jan S. Aritonang, *Sejarah Perjumpaan Kristen dan Islam di Indonesia* (Jakarta: PT BPK Gunung Mulia, 2006), 241-250.

2 <http://overseas.mofa.go.kr/id-ko/index.do/정책/인도네시아개관/인도네시아개황> (2018)/(2021년 2월 19일 접속).

수의 딴미(*Dhimmi*)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인도네시아 기독교가 어떤 측면에서 딴미로서의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이슬람 선교를 위한 기독교 공동체의 선교 과제와 그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소수의 딴미 공동체로서 불평등과 박해 속에서 인도네시아 기독교 공동체는 생존하고 존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표지를 보여주는 “현존”으로서의 선교를 실천해 왔다. 나아가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온건하고 중도적인 무슬림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인도네시아 이슬람 선교의 중요한 방안이다.

II. 딴미(*DHIMMI*) 제도에 대한 이해와 상반된 평가

딴미는 역사적으로 이슬람 국가 지배 하에서 살아가던 소수의 비종교인 유대교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인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딴미 제도의 시작은 이슬람 초기 무함마드 시대에서부터이다. 딴미 제도는 무함마드 시대로부터 이슬람 지배하에 사는 타종교 피정복민들이 인두세(*jizya* 지즈야), 그리고 토지세(*kharāj* 카라즈)라는 의무를 수행하면서 일정부분 생명과 재산,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고, 이것이 ‘딴미 제도’의 시작이 되었다.³ 이 과정에서 다수 무슬림의 소수 타종교인을 향한 차별적 행동, ‘딴미튜드(Dhimmitude)’가 행해졌다.⁴ 딴미튜드, 즉 딴미에 대한 차별

3 현한나, “ISIS에 의한 현대판 딴미제도에 대한 고찰과 테러 극복을 위한 화해,” 「선교와 신학」 38 (2016): 105.

4 Kinurung Maleh Maden, “The Manifestation of Dhimmitude in Present Time: a Challenge of Missionary Works in Indonesia,” 「미션네트워크」 3 (2013): 20.

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는지, 아니면 당시 지배적인 국가의 종교가 다른 타종교인을 대하는 수준과 비슷했는지에 대해서 이슬람과 기독교는 지금까지 상반된 견해를 보여 왔다.

먼저 이슬람의 견해를 살펴보면, 딤미 제도는 이슬람이 관용의 종교이었음을 나타내는 제도였다는 주장이다. 딤미 제도는 이슬람이 다수 종교인 사회 속에서 소수의 타종교인을 보호해주는 제도였고, 다수의 관용을 이슬람이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손주영에 의하면, 이슬람은 소수 타종교인 딤미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해주었고, 꾸란에서 딤미의 인권과 재산권, 그리고 신앙의 자유 등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구절을 근거로 소수 타종교에 대해서 이슬람이 관용적 태도를 보여 왔다고 말한다.⁵ 황병하도 일반적으로 이교도에 대한 이슬람의 메시지는 무슬림이 되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었으나, 딤미였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내는 복종이 추가적인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관용적이었다는 것이다.⁶ 이슬람 학자들은 꾸란을 근거로 이슬람이 타종교인에 대해 관대했고, 당시 정복민과 피정복민 사이의 엄격한 차별이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이슬람은 피정복민인 딤미의 자유를 인정해주었고 생명을 보호해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딤미 제도를 이슬람의 관용을 나타내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기독교의 견해는 딤미 제도에 나타난 이슬람의 관용이 이슬람의 주장만큼 실제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딤

5 꾸란 2장 256절 “종교에 강요는 금물이다.”라는 구절과 꾸란 109장 4-6절의 “나는 너희들이 숭배하는 것에 대한 숭배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숭배하는 것에 대한 숭배자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종교가 있고, 내게는 나의 종교가 있다.”는 이슬람에서 타종교를 향한 관용의 근거로 종종 사용되는 구절이다. 손주영, 『이슬람: 교리, 사상, 역사』 (서울: 일조각, 2007), 457-462.

6 황병하, “이슬람의 관용과 차별에 관한 연구: 딤미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7-1 (2007): 47.

미인 그리스도인을 차별하는 제도였다는 것이다. 첫째로 무슬림들의 주장과 달리 딘미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딘미(*dhimmi*)는 이슬람 국가와 ‘딘마(*dhimma*)’라고 불리는 협약을 맺으며 살아가는 협약민⁷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협약이 쌍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한 딘미의 보호는 제한된 보호였다. 협약은 불평등했고, 불평등한 협약에 의한 보호는 이슬람의 주장처럼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딘미는 종종 극심한 차별과 심하게는 박해를 경험했다.

둘째는 딘미 제도에 나타난 무슬림과 딘미의 뚜렷한 차별이다. 크게는 딘미에게만 부과된 지즈야와 기타 다양한 제약에서 구체적인 차별이 드러났다. 딘미는 재산, 생명, 이동, 신체, 그리고 종교 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았지만, 무슬림과 비교해서 훨씬 많은 카라즈와 지즈야를 내야 했다. 후에는 의상, 머리 모양, 예배, 가옥의 높이, 교회와 회당의 건축과 보수, 동물의 사용 등 실생활에 있어서까지 딘미는 수많은 제약을 경험했다.⁸ 딘미가 겪은 다양한 차별 중에서 지즈야는 딘미 그리스도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장 힘든 제약이고 차별이었다. 지즈야는 심지어 매달 지불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대신 세금으로 바치기까지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즈야는 큰 어려움이었다.⁹ 지즈야로 인해 점차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

7 John L. Esposito, *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Islamic World* 2 (NY: OXFORD, 2009), 71.

8 Kinurung Maleh Maden, “The Manifestation of Dhimmitude in Present Time,” 20.

9 지즈야의 액수는 적게 잡아도 당시 중산층 노동자의 20주 분량의 월급에 이르렀고, 그래서 딘미 그리스도인은 지즈야를 지불할 방법이 없어서 숨기도 했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을 주기까지 한 것이다. 이나빌, 『니끼우 요한의 연대기와 이슬람의 이집트 침략』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130-132.

했다. 이나빌은 이집트 이슬람화의 실제적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지즈야였고, 다른 하나는 박해였다고 지적한다.¹⁰

셋째는 딤미에 대한 박해가 실제적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꾸란에서 딤미로 살아가는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해 지하드를 지시한 유명한 구절은 9장 29절이다.¹¹ 하디스에도 무슬림에게 배교자를 죽이라고 했고, 이들은 부활의 날에 특별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¹² 딤미를 인정했던 꾸란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딤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라는 명령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엘룰(Jacques Ellul)은 이슬람 14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슬람의 통치하에 살아갔던 딤미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살아왔다고 지적한다.¹³ 딤미에게 가해졌던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살펴보면, 이슬람의 딤미에 대한 박해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기독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보면, 딤미 제도는 이슬람의 관용을 보여준 제도가 아니라 이슬람의 차별이 분명하게 드러낸 제도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딤미 제도 속에서 딤미는 보호받기는커녕 갈수록 지즈야와 카라즈를 비롯한 수많은 제약과 차별을 경험했다. 무슬림으로의 개종에 대한 압력이 늘어났고 따르지 않을 때는 핍박과 박해가 이어졌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딤미 제도가 비단과

10 앞의 책, 131.

11 “성전을 받고 있으면서 알라와 종말의 날을 믿으려 하지 않고 알라와 사도가 금한 것을 금하지 않고 참된 종교를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자발적으로 인두세를 바칠 때까지 싸우라.”

12 James F. Gauss, *Islam & Christianity: a Revealing Contrast* (Alachua Fla., : Bridge-Logos, 2009), 291.

13 Jacques Ellul, *Islam et Judéo-Christianisme*, 이상민 옮김, 『이슬람과 기독교』 (충남: 대장간, 2009), 138.

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Ⅲ. 딴미(DHIMMI)와 인도네시아 기독교의 연관성 이해

1. 딴미적 상황으로서의 인도네시아 기독교

다수의 이슬람 국가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들은 정도와 상황은 다르지만 현대판 딴미로서 크고 작은 차별과 박해, 억압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다수의 이슬람 사회에서 소수의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인도네시아 기독교를 딴미적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된다.

인도네시아 기독교는 수적인 면에서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역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은 인도네시아 인구 2억 7천만 명의 10%(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 정도이고, 그 수는 대략 2천 7백만 명에 이르고, 개신교인만 2천만 명에 이른다.¹⁴ 이 숫자는 한국 개신교인 수의 2배 이상이고, 개신교 선교 역사도 1605년 네덜란드의 도착 이후 400년이 넘다고 볼 때 인도네시아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강국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샤리아에 의해 통치되는 이슬람 국가가 아닌, 판차실라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딴미적 상황으로 인도네시아 기독교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

14 정승현·이승현, “1942년 이후 인도네시아 기독교 동향 연구: 개신교와 오순절을 중심으로,” *Muslim-Christian Encounter* 13-2 (2020): 54.

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볼케르(Volker Küster)는 인도네시아가 판차실라에 의해 이슬람이 다른 5개의 종교와 같은 수준에 있으므로, 이슬람 역사에 존재했던 담미와 같은 차별적인 제도는 없다고 주장한다.¹⁵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소수 종교는 이슬람처럼 판차실라에 의해 공식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담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기독교 공동체를 담미적 상황으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기독교 공동체가 겪는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박해의 경험과 상황 때문이다. 소수 종교를 보호하는 판차실라보다 이슬람법인 샤리아가 더 우선해서 적용되는 일들이 이슬람이 다수인 여러 지역 정부와 관리들, 그리고 경찰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¹⁶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 사회가 이슬람화 되는 과정 속에서 소수 종교를 향한 종교 규제가 점점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차별과 불평등은 우선적으로 종교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법 규정이 이슬람과 기독교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예배 처소의 허가와 관련된 것이다.¹⁷ 각 도시에 있는 대표적인 모스크와 교회 일부를 제외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다수의 모스크와 교회는 건축허가가 없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역 관리들은 주로 교회 예배당의 건축허가가 없는 것만을 문제로 여

15 Volker Küster, *Muslim Christian Relations Observed: Comparative Studies from Indonesia and the Netherlands* (Germany: Leipzig, 2014), 342.

16 2012년 한해 종교적 자유와 관련된 폭력 문제가 371차례 발생했고, 이것은 특정한 소수의 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28개 주에서 발생했다. Kimurung Maleh Maden, "The Manifestation of Dhimmitude in Present Time," 59.

17 Junifrius Gultom, "Church-State Relations in Indonesia's Post Colonial Period a History Analysis and Missiological Appraisal," (장로회신학대학교, Th.D in Missiology, 2014), 341-343.

긴다. 이것은 이슬람의 영향이 강한 지역일수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고, 결국 교회 폐쇄로 종종 나타난다.¹⁸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차별은 더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아훅(Basuki Ahok)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평등은 여실히 드러났다.¹⁹ 아훅 주지사의 경우와 2019년 잠비(Jambi)주 교회 폐쇄의 경우는 정치와 종교 전반에 걸쳐서 이슬람 다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소수 그리스도인이 처한 실제적인 불평등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이고, 인도네시아 기독교 공동체를 담미적 상황으로서 이해하는 현실적인 근거가 된다.

2. 인도네시아 교회의 “헌존”으로서의 선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다양한 불평등의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 기독교 공동체는 소수의 담미로서 자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보다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다수의 이슬람 사회 속에서 인도네시아 교회는 이슬람을 향한 선포적인 선교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믿음을 지키면서 내부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하는 예배와 친교 공동체로 살아왔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기독교의 선교는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했고, 경계를 넘는 선교와 선포로

18 이슬람 주정부의 법집행으로 인해 교회 폐쇄나 교회 허가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019년에 수마트라 잠비주에서는 별 문제 없이 예배를 드려왔던 3곳의 예배당이 폐쇄되었다. 그 세 교회는 가나안 감리교회(Gereja Methodist Indonesia Kanaan), 바탁 개신교회(Huria Kristen Indonesia: HKI),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 교회(Gereja Sidang Jemaat Allah: GSJA)이다.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181002081858-20-334854/gereja-jambi-disegel-amnesty-sebut-jokowi-amnesia-pada-janji/>(2021년 2월 19일 접속).

19 정승현 · 이승현, “1942년 이후 인도네시아 기독교 동향 연구,” 70-71.

서의 선교는 미비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교회가 다수의 이슬람 사회 속에서 소수의 덤미로서 다양한 제약과 불평등을 경험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교를 수행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굴툼(Junifrius Gultom)은 인도네시아 교회가 소수 종교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선교를 수행해왔다고 지적한다.²⁰

인도네시아 교회는 덤미로서 존재하면서 하나님 나라 표지로서의 선교적 현존을 보여주었다. 김영동에 의하면, “선교적 현존은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고,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의 선교적 현존은 현상 유지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근본적인 물음을 갖도록 이끈다.”²¹ 한국일도 “선교적 현존이란 단지 교회가 세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구체적인) 역사적, 사회 문화적 조건 속에서 기독교적 삶을 실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²²라고 말한다. 인도네시아라는 역사적, 문화적, 특히 이슬람이 다수 종교인 사회라는 현장에서 인도네시아 기독교는 소수의 덤미로서 기독교적 삶과 믿음을 유지하는 선교적 현존을 나타내왔다. 선교적 현존을 실천하는 인도네시아 기독교의 덤미로서의 존재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 표지로서의 선교이다.

덤미로서의 인도네시아 교회가 성육신적 현존의 모습으로 존재해 온 것의 구체적인 예는 각 지역에 존재하며 신앙의 뿌리를 내린 개척교회 전통의 종족교회들이다. 북부 수마트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바탁(HKBP, *Huria Kristen Batak Protestan*: 바탁개신기

20 Junifrius Gultom, “Church-State Relations in Indonesia’s Post Colonial Period a History Analysis and Missiological Appraisal,” 338-340.

21 김영동, 『교회를 살리는 선교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156.

22 한국일, 『세계를 품는 선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56.

독교단)교회는 담미로서 존재하면서 현존으로서의 선교를 감당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²³ 수마트라섬 10개 주중에서 북부 수마트라 주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절대 다수가 무슬림인 상황에서 HKBP교회는 각 지역에 이주한 바타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다. HKBP교회는 대표적인 이슬람 지역인 파당, 프칸바루, 팔렘방, 람퐁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심지어 강성 이슬람 지역인 아체주에도 교회를 세웠다.²⁴ HKBP교회로 대표되는 바타크교회는 수마트라 다수의 이슬람 지역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바타크 디아스포라를 위한 종족교회를 세웠다. 각 지역에 설립된 바타크교회는 성장하고 확산되면서 하나님 나라 표지로서의 선교적 현존을 보여주었다. 바타크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슬람이 다수인 지역에서 선교적인 정체성,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냄 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살아왔다는 점이 중요하다.²⁵ 인도네시아 기독교는 담미적 상황에서도 이슬람이 다수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나타내며 선교를 수행해 왔다.

IV. 무슬림과의 대화를 통한 선교의 근거

담미적인 상황 속에서 현존으로서의 선교를 수행해 온 인도네시아 교회가 현존으로의 선교를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선교 방안

23 바타크교회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루터교회이고, 인도네시아 최대의 개혁신교단이다.

24 수마트라 전체 134개 시·군 중 HKBP교회가 없는 곳은 단 6개에 군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바타크교회는 수마트라 전 지역에 세워졌다. 김동찬, “디아스포라 선교 연구: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과 수마트라 바타크 기독교인의 경계 넘는 선교의 비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49.

25 현한나, “누가 디아스포라인가?” 『복음과 선교』 49(2020): 490.

으로 대화를 통한 증거로서의 선교를 제안한다. 대화는 인간 공동체 일상의 활동이고 종교적인 대화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온건하고 중도적인 무슬림과의 대화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을 열어준다. 한권식은 국내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11명을 인터뷰했는데, 그중 7명은 NU(*Nahdlatul Ulama*, 나흐다 툴 울라마 : 인도네시아 이슬람 전통주의) 배경이었고, 3명은 무함마디야 소속이었으며, 나머지 1명은 민속 이슬람이었다.²⁶ 이 결과가 흥미로운 사실은 기독교 복음에 더 잘 반응했던 인도네시아 무슬림이 NU 배경의 전통적인 무슬림이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인 NU는 온건하고 중도적인 이슬람이었기 때문에, NU 무슬림들은 기독교 복음에 더 잘 반응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상황에서 온건하고 중도적인 무슬림과의 대화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실제적으로 제공한다. 이슬람과의 대화를 통한 선교에 적극적이었던 크래그(Kenneth Cragg)는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무슬림과 친구가 되어 나누는 진정한 대화는 이슬람 선교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²⁷

인도네시아의 선교적 상황은 판차실라에 의해서 직접적인 복음전도가 법으로 금지되어 선포로서의 선교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무슬림인 사회임에도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그리스도인 주위에 언제나 이웃으로, 직장 동료로, 학교 친구로,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으로서 존재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무슬림과 만나는 상황은 일상이며, 무슬림과의 만남

26 한권식, “한국 거주 무슬림의 기독교로의 회심 연구,” *Muslim-Christian Encounter* 7-2 (2014): 70.

27 Kenneth Cragg, *Muhammad and the Christian: a Question of Response* (Boston: Oneworld, 1999), 121.

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는 친구이자 동료,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만남이다. 인도네시아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슬림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정성이 있는 대화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을 열어 준다.²⁸ 무슬림을 만나는 매일의 일상을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 여길 필요는 없지만,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복음 증거를 위한 만남과 대화를 일상에서 이어가야 한다. 이슬람이 다수인 인도네시아에 상황에서 그리스도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슬림은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이 대화 속에서 무슬림의 마음 속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을 여시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무슬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아들여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슬림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선교적 책무인 것이다. 그리고 무슬림과의 만남과 대화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아래 인도되고 있음을 대화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믿어야 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무슬림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뉴비긴(Lesslie Newbigin)에 의하면, 진정한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지만, 교회에 깊이 뿌리박은 존재로서 대화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²⁹ 소

28 D. C. Mulder, *Hubungan antara Dialog dan Misi* (Jakarta: PT BPK Gunung Mulia, 2004), 162.

29 뉴비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타종교인과의 대화에서 구체적인 몇 가지 대화의 전제를 강조한다. 첫째는 타종교인과의 대화에서 그리스도인과 타종교인 모두 만유의 아버지로부터 창조된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진 자들이라는 전제이다. 둘째는 대화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세상에 보냄 받은 존재로서 예수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화에 참여하는 쌍방 모두를 변화시키시는 주체라는 점을 믿고 그리스도인은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Lesslie Newbigin, *Open Secret*, 홍병룡 옮김, 『오픈 시크릿』 (서울: 복 있는 사람, 2012), 306-311.

수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다수인 무슬림과 만나서 대화할 때, 두려움 대신에 평온함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취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교회 공동체의 일부로서 무슬림과 만나는 대화 속에서 성령께서 증인의 담대함을 주신다.

로잔운동의 파타야 대회(1980년)는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간의 대화의 목적이 개종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대화에 참여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대화 가운데 회심이 일어날 수 있음을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³⁰ 그리스도인은 무슬림과의 대화에서 즉각적인 개종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대화하는 무슬림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충성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대화에 임해야 한다. 무슬림과 만나서 대화하는 복음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다. 겸손한 태도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임하는 대화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무슬림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해 온 쉥크(David W. Shenk)는 수년간 200차례 이상 모스크를 방문하여 이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2000년 10월에 참석한 이슬람과의 대화 포럼을 마치며 그는 “왜 자신을 초대했느냐?”는 질문을 포럼을 준비한 이슬람 측에 물었다. 이에 대해 이슬람 측은 “왜냐하면 당신의 책이 당신이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며 동시에 무슬림을 존중하는 사람임을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³¹라는 응답을 들려 주었다. 즉, 복음에 헌신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무슬림을 존중하며 대화에 참여할 때, 이는 그리스도를 증거 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는 언제나

30 www.lausanne.org/content/lop/lop-13, 2, F/2020년 11월 19일 검색.

31 David W. Shenk, *Journeys of the Muslim Nation and the Christian Church: Exploring the Mission of Two Communities* (Pennsylvania: Herald Press, 2003), 18.

지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무슬림과의 만남과 대화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세상에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었다.³² 그리스도 증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대화에 무슬림들이 마음을 열고 듣는다. 공식적이든지 비공식적이든지 무슬림과의 대화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는 무슬림들에게 예수를 따를 회심의 기회가 주어진다.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기독교 선교의 합당한 한 부분으로서의 그러한 대화는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존경심을 담아 다른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갖추는 일이다.”³³고 말한다.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슬림을 존중하며 나누는 대화는 증거로서의 선교이다.

V. 무슬림과의 대화를 통한 선교의 방법

1.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대화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의 『문명의 충돌』에 의하면,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은 지난 1400년 동안 충돌의 역사였고, 21세기에도 두 종교가 서로 확장하면서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³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9.11 테러 이후, 헌팅톤의 예측처럼

32 David W. Shenk, *Christian, Muslim, Friend: Twelve Paths to Real Relationship*, 이창산 옮김, 『무슬림과 친구되는 열두 가지 방법』 (논산: 대장간, 2018), 67-68.

33 John R. W. Stott and Christopher Wrigh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김명희 옮김, 『선교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8), 163-164.

34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서울: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듯이 보였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들에게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공포감과 혐오감을 뜻하는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가 서구와 한국에서 갈수록 확산되었다.³⁵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과 이로 인한 이슬라모포비아의 확산은 두 종교 간의 충돌과 긴장만 야기시킨 것이 아니라, 두 종교와 직간접적인 영향 가운데 있는 전 세계에 긴장과 충돌을 더 가져왔다. 이것은 한편, 현 세계에서 두 종교가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함을 말해준다. 노튼(Anne Norton)은 이슬람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문명의 충돌에 대해 우려하는 서구인들은 무슬림과 대화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소리를 실제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³⁶ 왜냐하면 서구인들은 아직도 이슬람을 떠올릴 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꾸란을’이라는 슬로건을 연상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슬람 단체에 의해 지하드가 행해지고, 자살 폭탄테러 소식이 지구촌 곳곳에서 보도될 때, 이슬람은 역시 평화와 거리가 먼 ‘폭력의 종교’라는 인식이 각인된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폭력의 종교’가 아닌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한다. 나스르(Seyyed Hossein Nasr)에 의하면, 이슬람이란 용어는 평화와 관련 있고, 하나님의 99개 이름 중 하나는 ‘평화(As-Salam)’이다.³⁷ 무슬림의 일상의 인사말도 평화를 나타내는 ‘앗 살람 알라 이쿰!(As-Salam ‘alaykum: 당신에게 평화가 있으라!)’이다. 이슬

김영사, 1998), 280-286.

35 김동문,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 (경기: 선울, 2017), 77-78.

36 Anne Norton, *On the Muslim Ques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11.

37 Seyyed Hossein Nasr, *The Heart of Islam: Enduring Values for Humanity*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2002), 215-219.

람이 평화의 종교라는 나스르의 주장은 온건한 정통 이슬람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오렐라나(Kadayifci-Orellana)에 의하면, 꾸란과 하디스에 나타난 평화에 대한 언급은 정의와 함께 이슬람 가르침의 중심 주제였다.³⁸ 이슬람 확장의 역사 속에서 칼과 정복을 통한 확산 과정이 나타났지만, 이와 동시에 상인과 수피들에 의한 평화로운 이슬람화 과정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이슬람의 주장처럼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슬람을 폭력의 종교라고 인식하는 것은 이슬람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쉥크는 첫 장을 제외하고 꾸란에 있는 모든 장이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Al-Rahman and al-Rahim*)’라는 표현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평화의 표시라고 말한다.³⁹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르는 과격한 테러로 인해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보다 ‘폭력의 종교’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쉥크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평화를 파괴하는 테러 행위가 꾸란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고, 자살 폭파범들이 이슬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혐오감을 갖는다고 지적한다.⁴⁰

볼프(Miroslav Volf)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평화로운 공존이 필요한 현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폭력을 자행하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이슬람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슬람 극단주의가 이슬람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때,

38 S. Aye Kadayifci-Orellana, "Muslim Perspectives on War and Peace," Mohammed Abu-Nimer and David Augsburg, *Peace-building by, between, and beyond Muslims and Evangelical Christians* (Lanham: The Rowman & Littlefield, 2009), 20.

39 David W. Shenk, 『무슬림과 친구되는 열두 가지 방법』, 208.

40 앞의 책, 205.

이슬람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반응도 극단주의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이는 평화가 아닌 충돌을 증가시킬 뿐이기 때문이다.⁴¹ 볼프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서로를 향한 극단주의적인 반응 때문에 갈수록 충돌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기 위한 10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⁴² 그가 제안한 방안의 핵심은 이슬람 극단주의와 이에 반응하는 기독교 극단주의 양쪽을 다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계 1,2위 두 종교 간에 서로를 향한 극단주의적인 견해와 태도를 극복할 때, 두 종교 간에 충돌과 분쟁이 줄어들고 두 종교 간의 평화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킹(Hans Küng)도 그의 저작인 『이슬람』에서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국가 간의 평화도 없다.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 간의 평화도 없다. 종교에 대한 기초 연구 없이는 종교 간의 대화도 없다.”⁴³고 강조한다. 그는 종교 간에 충돌과 폭력이 끊임없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기독교 두 종교는 서로 대화해야 하고, 대화를 통해서 두 종교는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거의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 시점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교회와 성당 등의 기독교 시설에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은 이슬람과

41 Miroslav Volf, *Allah: a Christian Response*, 백지운 옮김, 『알라: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서울: IVP, 2016), 342.

42 구체적으로 볼프는 10가지 방법을 통해 극단주의적인 견해를 극복하고 두 종교가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진리에 관하여 담론을 펼치는 것, 둘째 공통의 신을 인정하는 것, 셋째 신의 사랑과 공의를 믿는 것, 넷째 이웃 사랑의 명령을 충실히 지키는 것, 다섯째 신에 대한 건강한 경외심을 갖는 것, 여섯째 불의에 맞서는 것, 일곱째 편견에 맞서는 것, 여덟째 종교적 강요에 맞서는 것, 아홉째 무례함에 맞서는 것, 열째 정치적 배타주의에 맞서는 것을 제안한다. 앞의 책, 338-342.

43 Hans Küng, *Der Islam: Geschichte, Gegenwart, Zukunft*, 손성현 옮김, 『이슬람: 역사·현재·미래』 (서울: 시와 진실, 2012), 9.

기독교 사이에 평화를 구축하는 일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중요하고 시급한 선교적 과제임을 일깨워준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구약과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평화의 복음을 이 세상에 주셨다. 평화의 복음의 정점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이다. 예수는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평화가 필요한 세상에 하나님이 평화의 사도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그분의 제자들을 평화의 사자로 보내셨다.⁴⁴ 교회는 예수의 보냄 받은 제자로서 보냄 받은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다원적인 세상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한 헌신의 첫걸음은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이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다. 스토틀(John R. W. Stott)는 “타종교인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한 인간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살아있고 인격적인 우정을 구축해야 할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⁴⁵ 고 제안했다. 타종교인 무슬림과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될 때, 충돌이 아닌 평화에 이를 수 있다. 꾸란은 반복적으로 비무슬림과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비무슬림이 무슬림을 공격하지 않는 한 그들을 공평하게 예절에 맞게 대우하라고 지적한다.⁴⁶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무슬림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친구가 될 때, 충돌이 줄어들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쉥크는 모든 무슬림에게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무슬림 친구가 있는 것이 평화를 위한 중요한 통로라고 말한다.⁴⁷ 인도네시아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이규대는 온건하고 중도적인 이슬람을 대표하는 NU 무슬림과 만남과 대화를 통해 우정을 쌓고 친구가 되는 것

44 James F. Gauss, *Islam & Christianity*, 98-100.

45 John R. W. Stott, 『선교란 무엇인가』 129.

46 꾸란 3:28, 5:51, 29:46, 60:89.

47 David W. Shenk, 『무슬림과 친구되는 열두 가지 방법』, 30-31.

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⁴⁸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위도도(Joko Widodo)는 인도네시아는 테러리즘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천명함으로 이슬람 과격 및 급진주의를 단호히 배격하며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온건하고 중도적인 특성의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유지되도록, 대통령에 재선되면서 NU 의장이었던 아민(K.H. Ma'ruf Amin)을 부통령에 임명했다. 그는 최근(2021년 1월 27일)에 인도네시아 역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복음주의 배경의 그리스도인 프라보워(Listyo Sigit Prabowo)를 경찰청장에 임명함으로 소수 기독교를 배려하는 정책을 실행했다.⁴⁹ 샤리아가 아니라 판차실라의 기초 속에 무슬림과 그리스도인이 친구가 되어 인도네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가져올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교회는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온건하고 중도적인 무슬림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드러내는 선교를 수행해야 한다. 온건하고 중도적인 무슬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대화는 인도네시아 상황에서 증거로서의 선교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2. '공통의 관심사'에 초점을 둔 대화

인도네시아에서 소수 그리스도인이 다수 무슬림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매일 만나는 무슬림 이웃들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무슬림이 다수인 사회 속에서 소수인 기독교가 평화로운 공

48 이규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인도네시아 이슬람 운동과 기독교 선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311.

49 [https://pgi.or.id/presiden-jokowi-tidak-ada-tempat-di-tanah-air-bagi-terorisme/\(2021년 3월 11일 접속\).](https://pgi.or.id/presiden-jokowi-tidak-ada-tempat-di-tanah-air-bagi-terorisme/(2021년 3월 11일 접속).)

존을 추구하고자 할 때, 다수인 무슬림과 대화하면서 이슬람에 관해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과 기독교 양쪽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면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 아래의 도표 1에 의하면, 에큐메니컬 배경이든지 복음주의 배경이든지 그리스도인은 이슬람 근대주의자나 전통주의자, 심지어 이슬람주의자와도 다양한 공통의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협력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 두 종교 간에는 공통의 관심사 영역이 많이 존재한다. 열대 우림의 정글 지대인 인도네시아의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지구에 대한 공통된 고백이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피난민을 돕고, 그리고 지진과 천재지변을 당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면서 두 종교는 대화하며 협력할 수 있다.⁵⁰

[도표 1]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화 유형⁵¹

	이슬람 근대주의자	이슬람 전통주의자	이슬람주의자
WCC	1. 종교적 경험에 기초한 대화 2. 사회적 관심사에 기초한 대화 3. 정의와 지지 캠페인		
복음주의자	1. 전통적인 선교 2. 정의와 지지 캠페인 3. 사회적 관심사에 기초한 대화 4. 종교적 경험에 기초한 대화		1. 전통적인 선교 2. 정의와 지지 캠페인 3. 논쟁과 변증

50 Evelyne A. Reisacher, *Joyful Witness in the Muslim World: Sharing the Gospel in Everyday Encounters* (MI: Baker Academic, 2016), 115–125.

51 Peter Ridell, “Building Bridges between Christians and Muslims,” John Azumah & Peter Riddell, *Islam and Christianity on the Edge* (Victoria: ACORN PRESS, 2013), 191.

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사회적 관심사에 기초한 공통의 목표를 위해 이슬람 단체와 협력하며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주 발생한 재난구호를 통해서였는데, 수마트라의 파당(Padang) 지역에서 2009년에 진도 7.9의 큰 지진이 발생해서 1천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⁵² 필자는 PCK(Presbyterian Church of Korea)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3차례에 걸쳐서 재난구호를 실행했다. 당시 현장에서 지진구호를 협력한 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서부개신교회(GPIB Padang)와 YT-B(Yayasan Tanggul Bencana: 재난극복법인)라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NGO 구호단체였다. 지진을 당한 이재민을 돕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PCK와 인도네시아 교회, 그리고 이슬람 구호단체가 대화하며 협력할 수 있었고, 재난을 당한 이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 쓰나미, 그리고 화산폭발과 같은 재난 상황은 기독교와 이슬람 두 종교가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이고, 이에 기초한 만남과 대화는 증거로서의 선교가 된다.

인도네시아 역사 속에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공통의 적이 있을 때 두 종교는 화합했고 충돌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독립 시기에는 일본에 대항하는 공통의 목표 때문에 두 종교는 대화하며 협력하였고 충돌하지 않았다. 근대화 과정에서 두 종교가 함께 대항할 목표는 가난과 미개발, 무지,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 등 이었다. 아리토낭(Aritonang)은 현대에도 함께 대응할 ‘공통의 적’이 많이 있

52 “2009년 9월 30일 오후 저희가 사는 빼칸바루시와 이웃해 있는 주의 수도인 파당시에서 진도 7.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총 인명 피해 4021명(실종: 2명, 사망: 1117명, 중상: 1214명, 경상: 1688명)과 건물 피해 279,332채가 발생했고, 학교 건물도 2000여 곳 이상, 종교 시설도 1000여 곳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윤용호·김경민 선교사 2009년 8월 기도편지 중에서.

기에, 이 문제를 함께 마주하면서 두 종교가 대화하는 과정은 인도네시아에서 충돌을 줄이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황을 늘려준다고 말한다.⁵³ 그렇지 않았을 때, 두 종교 간의 충돌이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자주 발생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을 줄이고 평화를 위한 대화의 시도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박금희에 의하면, “1991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종교간 대화기구(DIAN: Institute for Inter-faith Dialogue in Indonesia)는 청년 중심의 정규코스 학습 과정과 워크숍, 세미나와 포럼 등을 개최하며 종교간 화해 운동을 하고 있다.”⁵⁴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는 종교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2006년에 ‘종교인화해포럼(FKUB: *Forum Kerukunan Umat Beragama*)’이란 위원회를 만들었다. 협의체 성격의 종교인화해포럼은 인도네시아 모든 주와 시군에 종교단체와 주정부가 협의해서 인원을 구성하며 정부예산을 지원받는다. 종교인화해포럼은 판차실라의 정신에 근거해서 종교 간에 화해와 평화를 목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다.⁵⁵ 종교인화해포럼은 지역 사회 지도자와 종교지도자 간의 대화, 종교단체와 지역 사회의 기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특별히 종교별 예배처소 건립 시 허가에 대한 추천과 종교 간의 분쟁 조정의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종교 간의 충돌을 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소수인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설립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평등과 비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종종 경험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53 Jan S. Aritonang, *Sejarah Perjumpaan Kristen dan Islam di Indonesia*, 598-599.

54 박금희, “인도네시아 세계종교의 경쟁과 그 완화를 위한 모색,” 이삼열 외, 『아시아의 종교분쟁과 평화』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5), 230.

55 Kinurung Maleh Maden, “The Manifestation of Dhimmitude in Present Time,” 47.

해결하기보다는 종교인화해포럼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아리또낭은 인도네시아에서 소수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수인 이슬람 사회 속에서 살아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나눌 수 있고, 특히 다수인 이슬람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⁵⁶ 판차실라의 원리 위에 6대 종교를 인정한 인도네시아 상황에서 공통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고,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이슬람을 위한 중요한 선교 방법이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상황에서 종교 간의 다양성과 상이성을 인정하면서 일상의 삶을 더 붙여 살아가는 공존의 선교라고도 볼 수 있다.

VI. 맺는 말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성장과 확산의 역사였지만, 1400년 이슬람의 역사도 팽창과 확산의 역사였다. 이슬람의 팽창과 확산은 2030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진행 중이다.⁵⁷ 이슬람의 전 세계적인 확장에는 정복, 이주,

56 Jan S. Aritonang, *Sejarah Perjumpaan Kristen dan Islam di Indonesia*, 605-606.

57 'Pewresearch' Center의 2015년 통계에서는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1,752,620,000으로 보고되었고, 인구성장률을 감안하면 2020년에 18억 명이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현재 세계 인구 77억 명 중에서 18억 명이 전 세계 곳곳에 거주하고 있고, 대략 세계 인구 4명 중의 한 명은 무슬림이다. 2000년 무슬림 인구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대략 13억 명 정도였는데, 불과 20년 만에 5억 명 정도의 무슬림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9/04/01/the-countries-with-the-10-largest-christian-populations-and-the-10-largest-muslim-populations/>(2021년 2월 19일 접속).

상인들의 교역, 그리고 수피의 전래가 복합적으로 이슬람을 전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시켰다. 이슬람 국가 혹은 이슬람이 다수인 나라가 중동 지역을 넘어서 점차 증가했고,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기독교는 여전히 다수의 이슬람 사회 속에서 소수의 담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본고에서는 인도네시아 기독교를 담미적 상황으로 이해함으로써 선포로서의 선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적 현존으로서의 선교를 수행해 왔음을 논하였다. 인도네시아 기독교는 다수의 이슬람 사회 속에서 소수인 담미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차별과 박해를 경험했다. 이 같은 차별과 박해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기독교는 생존하며 믿음을 지켜왔고, 이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 선교적 현존으로서의 선교를 수행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인도네시아 교회의 이슬람을 향한 선교적 현존을 넘어서는 선교 방안은 대화로서의 선교이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은 온건하고 중도적인 이슬람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공통의 관심사에 초점을 둔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교회는 무슬림에게 선교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판차실라에 의해서 직접적인 복음전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그리고 특별한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무슬림과의 만나서 대화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 열린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슬림을 존중하며 나누는 만남과 대화는 증거로서의 선교이다.

이슬람 선교를 비롯한 모든 선교 사역에는 난관이 있고, 위기와 고난이 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선교에도 여전히 많은 장애물

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인 것이다. 위기와 고난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인도네시아 교회가 다수의 이슬람 상황속에서 소수의 덤미로서 현존으로서 선교를 넘어서서 대화로서의 선교를 활발히 수행할 때 인도네시아 이슬람 선교는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열려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문.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 경기: 선울, 2017.
- 김영동. 『교회를 살리는 선교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 박금희. “인도네시아 세계종교의 경쟁과 그 완화를 위한 모색.” 이삼열 외. 『아시아의 종교분쟁과 평화』.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5.
- 손주영. 『이슬람: 교리, 사상, 역사』. 서울: 일조각, 2007.
- 이나빌. 『니끼우 요한의 연대기와 이슬람의 이집트 침략』.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8.
- 한국일. 『세계를 품는 선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Aritonang, Jan S. *Sejarah Perjumpaan Kristen dan Islam di Indonesia*. Jakarta: PT BPK Gunung Mulia, 2006.
- Cragg, Kenneth. *Muhammad and the Christian: a Question of Response*. Boston: Oneworld, 1999.
- Gauss, James F. *Islam & Christianity: a Revealing Contrast*. Alachua Fla.: Bridge-Logos, 2009.
- Kadayifci-Orellana, S. Aye. “Muslim Perspectives on War and Peace.” Mohammed Abu-Nimer and David Augsburg, *Peace-building by, between, and beyond Muslims and Evangelical Christians*. Lanham: The Rowman & Littlefield, 2009.
- Küster, Volker. *Muslim Christian Relations Observed: Comparative Studies from Indonesia and the Netherlands*. Germany: leipzig, 2014.

- Mulder, D. C., *Hubungan antara Dialog dan Misi*. Jakarta: PT BPK Gunung Mulia, 2004.
- Nasr, Seyyed Hossein, *The Heart of Islam: Enduring Values for Humanity*.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2002.
- Norton, Anne, *On the Muslim Ques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 Reisacher, Evelyne A., *Joyful Witness in the Muslim World: Sharing the Gospel in Everyday Encounters*. MI: Baker Academic, 2016.
- Ridell, Peter, "Building Bridges between Christians and Muslims." John Azumah & Peter Riddell, *Islam and Christianity on the Edge*. Victoria: ACORN PRESS, 2013.
- Shenk, David W., *Journeys of the Muslim Nation and the Christian Church: Exploring the Mission of Two Communities*. Pennsylvania: Herald Press, 2003.
- Ellul, Jacques, *Islam et Judéo-Christianisme*. 이상민 옮김. 『이슬람과 기독교』. 충남: 대장간, 2009.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1998.
- Küng, Hans, *Der Islam: Geschichte, Gegenwart, Zukunft*. 손성현 옮김. 『이슬람: 역사 · 현재 · 미래』. 서울: 시와 진실, 2012.
- Lewis, Bernard, *The World of Islam*. 김호동 역. 『이슬람 1400년』. 서울: 까치글방, 2001.
- Newbiggin, Lesslie, *Open Secret*. 홍병룡 옮김. 『오픈 시크릿』. 서울: 북 있는 사람, 2012.

- Shenk, David W., *Christian, Muslim, Friend: Twelve Paths to Real Relationship*. 이창산 옮김. 『무슬림과 친구되는 열두 가지 방법』. 논산: 대장간, 2018.
- Stott, John R. W. and Wright, Christopher.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김명희 옮김. 『선교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8.
- Volf, Miroslav. *Allah: a Christian Response*. 백지운 옮김. 『알라: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서울: IVP, 2016.
- 김동찬. “디아스포라 선교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규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본 인도네시아 이슬람 운동과 기독교 선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Gultom, Junifrius. “Church-State Relations in Indonesia’s Post Colonial Period a History Analysis and Missiological Appraisal.”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Th.D in Missiology, 2014.
- 정승현 · 이승현. “1942년 이후 인도네시아 기독교 동향 연구: 개신교와 오순절을 중심으로.”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13, no.2(2020): 53-89.
- 한권식. “한국 거주 무슬림의 기독교로의 회심 연구.”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7, no.2(2014): 63-106.
- 현한나. “누가 디아스포라인가?” 『복음과 선교』 49(2020): 463-500.
- _____. “ISIS에 의한 현대판 덤미제도에 대한 고찰과 테러 극복을 위한 화해.” 『선교와 신학』 38(2016): 87-122.

- 황병하. “이슬람의 관용과 차별에 관한 연구: 딤미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vol.17, no.1(2007): 35-61.
- 황의갑. “딤미제도와 이슬람의 관용.” 「지중해지역연구」 vol.13, no.13(2011): 57-78.
- Maden, Kinurung Maleh. “The Manifestation of Dhimmitude in Present Time: a Challenge of Missionary Works in Indonesia.” 「미션네트워크」 3(2013): 17-62.
- John L. Esposito. *The Oxford Encyclopedia of the Islamic World* 2. NY: OXFORD, 2009.
- [http://overseas.mofa.go.kr/id-ko/index.do/정책/인도네시아개관/인도네시아개황\(2018\)/\(2021년 2월 19일 접속\).](http://overseas.mofa.go.kr/id-ko/index.do/정책/인도네시아개관/인도네시아개황(2018)/(2021년 2월 19일 접속).)
- [https://pgi.or.id/presiden-jokowi-tidak-ada-tempat-di-tanah-air-bagi-terorisme/\(2021년 3월 11일 접속\).](https://pgi.or.id/presiden-jokowi-tidak-ada-tempat-di-tanah-air-bagi-terorisme/(2021년 3월 11일 접속).)
-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181002081858-20-334854/gereja-jambi-disegel-amnesty-sebut-jokowi-amnesia-pada-janji/\(2021년 2월 19일 접속\).](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181002081858-20-334854/gereja-jambi-disegel-amnesty-sebut-jokowi-amnesia-pada-janji/(2021년 2월 19일 접속).)
-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9/04/01/the-countries-with-the-10-largest-christian-populations-and-the-10-largest-muslim-populations/\(2021년 2월 19일 접속\).](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9/04/01/the-countries-with-the-10-largest-christian-populations-and-the-10-largest-muslim-populations/(2021년 2월 19일 접속).)
- [www.lausanne.org/content/lop/lop-13, 2, F/\(2020년 11월 19일 접속\).](http://www.lausanne.org/content/lop/lop-13, 2, F/(2020년 11월 19일 접속).)
- 윤용호 · 김경민 선교사. 2009년 8월 기도편지 중에서.

■ ABSTRACT

Indonesian Christianity as a *Dhimmi* Situation and Mission as Dialogue

Yong Ho Yoon

The *dhimmi* are the non-Muslim minority who lived in the many Islamic societies since the founding and expansion of Islam. While Islam maintains that the protection of the *dhimmi* under the *dhimmi* system shows the tolerance of Islam, Christianity contends that the *dhimmi* system discriminates against the *dhimmi*. Under the *dhimmi* system, the discrimination of the *jizya* and *kharaj*, pressure to convert to Islam, and persecution were evident. In Indonesia, which has the largest Muslim population in the world, Christianity is a minority, and the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against Indonesian Christianity has parallels to the situation of the *dhimmi* in past Islamic states. That the Indonesian church survived the discrimination and restrictions that came with being *dhimmi* and kept the faith is a sign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missional presence of the Indonesian church exemplifies mission. Furthermore, mission as dialogue is

a missional method that goes beyond the missional presence of the Indonesian church toward Islam. Through dialogue and encounters that focus on common interests and seek peaceful coexistence with moderate Indonesian Muslims, the Indonesian church can witness to Christ.

Keywords: *Dhimmi*, Tolerance and Discrimination, Missional Presence, Mission as Dialogue, Peaceful Coexistence, Common Interest